

신화만큼 오래된 신화학의 장엄한 물결

에우메로스부터 데리다까지

유재원 | 외국어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태초에 신화학이란 없었다. 인간과 자연은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신화는 미신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신세가 됐다. 신화가 구멍난 인간 이성의 합리성을 메우게 된 것은 최근 들어서다. 인류의 발전에 따라 평가가 달라졌던 신화와 그 연구를 살펴본다.

태초에 신화가 있었다. 신화를 진실이라 믿던 시대에 인간은 자연과 하나였다. 인간이 만들어 낸 사회와 문화까지도 자연과 하나였다. 따라서 인간과 신들 사이에는 불연속이 없었다. 기원전 5세기를 전환점으로 그리스인들은 신화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됐다. 페르시아 전쟁과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을 통해 그들은 지구상에 다양한 민족이 각기 고유의 독특한 종교와 생활양식, 문화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렸고 신화도 함께 위기를 겪게 됐다.

태초에 인간과 신화는 하나였다

신화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비극의 탄생과 함께 시작됐다. 서사시 시대를 받쳐주던 왕과 귀족이 몰락하고 민중 중심의 민주주의가 시작되자 비극 작가들은 귀족적 색채가 짙은 신화를 재해석해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화해시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신화의 신성함은 적잖은 손상을 입었다.

같은 시기에 소피스트들을 비롯한 철학자들은 신화를 우의적으로 해석했다. 예를 들어 제우스는 비·천둥·번개 같은 자연의 무지한 힘을, 헤라는 빛을, 아프로디테는 거품의 아름다움을 의인화한 것이라 봤다. 이제 신화는 원시적 무지와 자연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로 생겨난 황당한 이야기로 여겨졌다. 신화에 대한 공격은 계속됐

다. 기원전 3백년경에 살았던 '에우메로스'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변형되면서 신격화돼 신화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해석은 이교도 신앙을 배격하려는 그리스도교의 이해와 맞아떨어져 르네상스 시대까지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18세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계몽주의 시대에 신화는 자연의 거친 힘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여겨졌다. 데카르트는 자연이라는 객체를 인간이라는 주체와 구분했다. 즉 자연을 탈영혼화했다. 이제 자연의 의인화는 불가능하게 됐다. 신화에 대한 현대의 불신은 이 계몽주의 전통에서 시작한다. 이 시대 이후 신화는 지성인이 타파해야 하는 미신이나 마술로 여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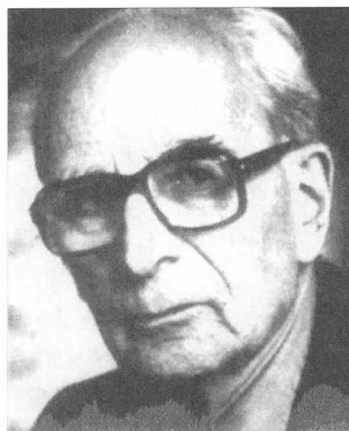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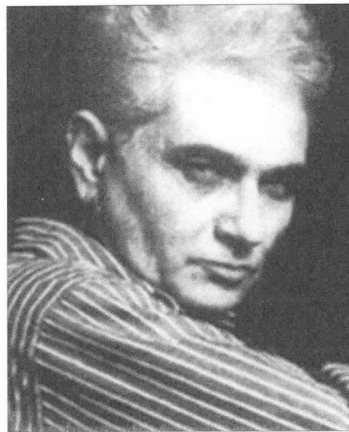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신화 연구는 독일 낭만주의자들의 몫이었다. 헤르더는 신화와 역사를 연관지었다. 그는 민족 개념을 끌어들이 신화를 각 민족의 독특한 공동 창작물이라 주장했다. 신화는 자연이라는 객관과 민족이라는 주관에 연결해 주는 상징으로 각 민족은 신화를 통해 자신들의 독특한 자연관을 형성한다. 따라서 한 민족의 신화는 그 민족에게 진실이지만 다른 민족에게는 거짓이다. 괴테 역시 신화를 각 민족의 고유한 상징 체계로 봤다. 그에 따르면 신화가 문학과 마찬가지로 시적 진실을 가진다. 신화를 문학으로 보는 이런 태도는 신화가 폭넓

은 삶의 현실에 관계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한편 19세기 중반에 활동한 막스 뮐러는 신화를 '언어의 병'에서 생겨난 것이라 봤다. 그에 의하면 신들은 창조자가 아니라 본질 없는 이름일 뿐이다. 이 주장은 지금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프레이저나 말리노프스키, 뒤르카임과 같은 인류학자들은 신화를 삶의 현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존재 형식의 표현이라 봤다. 이 학파는 신화를 마술에서 시작된 제의에서 발전된 것이라 주장한다. 제의는 인간과 짐승이 혈연공동체를 이룬다는 토테미즘에서 시작한다. 이로부터 성스러운 것과 부정된 것이 구분된다. 부족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부정된 것이다. 따라서 성스러운 것과 부정된 것에 대한 금기가 생겨나는데 이 금기는 공동체의 보호와 온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금기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제의가 생겨났다. 제의는 공동체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성한 규칙이었다.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신화

말리노프스키는 제의뿐 아니라 생활 습관, 사회 계급, 심지어 조리법까지도 모두 신화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의사회학파는 삶의 현실



인류의 꿈이 담긴 신화는 세계 변혁을 꿈꾸는 철학자들에게 한 번쯤 거처야 할 숲이다.
 피테 · 니체 · 데리다 · 레비스트로스 (위부터)

인 제의에서 유래한 신화를 인류학의 중요 정보로 다뤘다. 인간은 원시적이고 야만스러운 차원에서 신화, 종교, 학문의 단계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신화와 종교에는 미신적인 것이 남아 있으나 학문과 과학은 인간을 미신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나 이런 신화 해석은 신화가 가지는 합리성과 논리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19세기 말에 정신분석학은 신화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신화를 심리적 현상으로 보려는 시도는 니체에서 시작한다. 니체는 신화를 원초 의지의 폭력성에서부터 증용과 형식 안으로 도피하는 수단으로, 영혼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가진다고 봤다. 이에 반해 프로이트는 신화를 무의식적 원죄의 비밀스러운 표상으로 봤다. 프로이트의 후배인 융은 신화는 집단적 무의식으로 삶에 필요한 정신적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파악했다. 융은 신화를 통해 영적 삶의 법칙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의 신화 해석은 너무 심리적인 데에 치우쳤고 고대 신화를 현대인의 사고 방식으로 해석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신화 시대의 인간들은 주체인 인간과 대상인 객체를 분리하지 않았다. '나(Ego)'라는 심리적 대상은 현대인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신화 속에서 나와 세계는 하나다.

20세기의 신화 해석은 카시러에서부터 시작한다. 카시러는 칸트의 선형 철학에 바탕을 두고 신화를 연구했다. 카시러에게 신화는 직관형식과 범주에 의해 지배되는 아프리카리한 관념의 세계다. 따라서 신화학은 신화에서 우리의 직관과 범주 형식에 일치하는 것을 찾는다. 신화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 신화의 진리는 학문적 진리 앞에서 소멸된다. 이런 주장의 바탕에는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적 전체가 깔려 있다. 그러나 신화의 세계에서 이성(이성)은 학문의 세계에서처럼 중요한 위치를 갖지 못한다. 학문은 로고스의 세계인 반면 신화는 뫼토스의 세계다. 이 두 세계는 서로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1970년대 신화 연구에 구조주의가 등장한다. 레비스트로스는 신화는 암호이며 따라서 신화 해석은 암호 풀기라고 주장한다. 그는 신화를 신화소리 불리는 단순 문장으로 축소한다. 신화소들은 서로 모순을 일으키며 한 신화 안에 존재한다. 이 신화소들의 관계를 발견하는 일이 신화학의 목적이다. 구조주의는 신화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나 아니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다만 신화의 내면적 논리를 찾아 신화의 합

리성이 어디에서 오는가 밝히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그러나 신화를 신화소로 환원하는 것은 인위적이고 편협한 태도다. 구조주의는 신화의 구조에만 관심을 가질 뿐, 신화의 내용을 경시한다. 이 과정에서 신화에서 중요한 신화의 상징성들이 사라진다. 남은 것은 신화의 앙상한 골격뿐이다.

구조주의와 함께 20세기 후반부의 신화학의 주류를 이루는 이론은 원형 이론이다. 이 이론은 제1차 세계 대전을 전후로 새로운 신화학을 연 종교사학자인 엘리아데에서 시작된다. 엘리아데는 신화를 영원히 반복되는 원초적 사건을 다루는 것으로 해석했다. 즉 원형이 신화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이 원형들은 신화나 제의에서 언제나 반복될 수 있고 그 때마다 태고 때와 동일한 효능을 갖는다. 이에 따르면 예수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리스도교의 예식도 다른 신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원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엘리아데의 해석에는 신화가 왜 삶의 진리인가를 밝히고 있지 않다. 신화의 성스러운 의미 해석은 신화에서 신적 현실을 인정했다. 성스러운 의미의 해석은 충분하지 못하다. 신화에 과연 미신적인 것이나 환상, 오류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신화의 정당성과 진리에 대한 증명은 아직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된다.

20세기 후반에는 원형이론에 초점 맞춰

1970년대 후반 이후 신화 연구는 서구 합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새로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비교신화학자 캠벨은 인간과 자연을 조화시켜 인간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힘을 가진 사고체계인 신화를 살리는 것만이 서구 철학의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럽에서는 바르트·푸코·라캉·에코·뒤랑·데리다와 같은 반지성주의 사상가들은 서구 문명이 지나치게 이성(이성)에 치우쳐 신화의 원형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경시한 결과로 세계 제1, 2차 대전과 같은 비이성적이고 야만스러운 행위가 일어났다고 서구의 이성주의를 비난한다. 이들은 신화적 사고는 인간의 본능이며 이성에 의해서 대체될 수도, 대체돼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인류의 귀중한 정신 유산이요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인 신화적 세계로의 회귀만이 현 인류의 정신적 황폐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